

고이시카와 고라쿠엔

‘도쿠가와 미츠크니’ 과 인연이 깊은 이름난 정원



기념 스탬프 날인란

특별사적·특별명승 고이시카와 고라쿠엔 정원

- 개원 년월일
1938년4월3일
- 개원 면적
70,847.17㎡
- 개원 시간
오전9시~오후5시
(입장은 오후4시30분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에 따라 개원 시간이 연장될 경우가 있습니다.
- 휴원일
연말연시(12월29일~1월1일)
- 무료공개일
미도리의 날(5월4일)
도쿄도민의 날(10월1일)
- 정원 가이드(무료)
(일본어)
토·일·월요일, 공휴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영어)
토요일 오전10시 오후 1시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실시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의처】
고이시카와 고라쿠엔 서비스센터
전화 03-3811-3015
우편번호112-0004
분쿄구고라쿠(분쿄구 고라쿠) 1-6-6

| 입 장 료 | 개인 | 단체 (20명 이상) | 연간 패스포트 (고이시카와 고라쿠엔) | 연간 패스포트 (정원 9곳 공통) |
|--------|------------------------------------|----------------|-------------------------|-----------------------|
| | 일반 | 300엔 | 240엔 | 1,200엔 |
| 65세 이상 | 150엔 | 120엔 | 600엔 | 2,000엔 |
| 무료 | 초등학생 이하(보호자 필수) 및 중학생(도내 거주 또는 재학) | | | |

| 집 회 장 (임대) 간 도 쿠 테 이 | | ①낮 12:30~16:00 | ②밤 17:00~20:30 | ③하루 종일 12:30~20:30 |
|----------------------------|-----------|-------------------|-------------------|-----------------------|
| | 큰 방 (40명) | | 5,800엔 | 5,800엔 |
| 엔게쓰·후로·호라이 (각15명) | | 2,100엔 | 2,100엔 | 4,200엔 |
| 별실 (20명) | | 3,900엔 | 3,900엔 | 7,800엔 |
| 일본식 방 (10명) | | 2,100엔 | 2,100엔 | 4,200엔 |

*6개월 전의 오전9시부터 예약을 접수합니다. *정원을 관광하실 때는 별도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 【교통 안내】
- 동문
 - ◎JR 소부선 "스이도바시"(서쪽 출입구)에서 도보 5분
 - ◎도쿄메트로 마루노우치선·난부쿠선 "고라쿠엔"(2번)에서 도보 8분
 - ◎도메이 미타선 "스이도바시" (A2)에서 도보 8분
 - 서문
 - ◎도메이 오에도선 "이다바시" (C3)에서 도보 3분
 - ◎JR소부선 "이다바시" (동쪽 출입구)에서 도보 8분
 - ◎도쿄메트로 도자이선·유라쿠초선·난부쿠선 "이다바시" (A1, A3)에서 도보 8분
 - *주차장은 없습니다.



문화재 정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도쿄도립 공원은 에도, 메이지, 다이쇼 시대부터 내려온 역사·문화·자연을 간직하고 있으며 모두 국가와 도쿄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진과 전쟁, 도시화 등을 거치면서도 보존되어 온 소중한 존재이며, 이들 소중한 존재가 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후세까지 계승되도록 여러분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부탁말씀】

- 애완동물 동반, 정원에서 동식물 채집, 매트 사용, 주류 반입은 삼가해 주십시오.
- 건물 및 참경물의 보호를 위해 장소에 따라 사진촬영 및 스케치를 사절할 경우가 있습니다.
- 문화재의 보존 및 수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경우가 있으므로 일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원 내는 전면 금연입니다. 흡연소는 없습니다.

- 도쿄도립 문화재 정원 9곳
- 하마리큐 온시 정원
- 구 시바리큐 온시 정원
- 고이시카와 고라쿠엔 정원
- 리쿠기엔 정원
- 구 이와사키 저택 정원
- 무코지마 백화원
- 기요스미 정원
- 구 후루카와 정원
- 도노가야토 정원

오에도 · 도쿄에 남아 있는 심산유곡

에도시대 초기, 1629년에 미토 도쿠가와가를 일으킨 요리후사가 자신의 나카야시키(中屋敷:에도에 있는 저택 중에서도 가미(上)야시키 다음에 중요한 집. 나중에 가미야시키가 됨)로서 지은 것으로, 2대 지방영주 미쓰쿠니 시대에 완성된 정원입니다. 정원 양식은 연못을 중심으로 하는 회유식 석가산 천수정원입니다. 미쓰쿠니는 조선 시에 중국 명나라의 유신인 주순수(朱舜水)의 의견을 받아들여 엔게쓰교(圓月橋), 세이코노 쓰쓰미(西湖의 둑) 등 중국의 풍물을 본뒀으며, 중국의 정취가 가득 담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고라쿠엔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범중엄(范仲淹)의 '악양루기(岳陽樓記)' 에 나온 선우후락 즉, '국가의 안위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긴다' 라는 유명한 구절에서 따와 이름을 지었습니다.

고이시카와 고라쿠엔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나라의 특별사적·특별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지정을 받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도 고이시카와 고라쿠엔, 하마리큐시 정원, 긴카쿠지 등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엔게쓰교 다리

수면에 비친 모습이 보름달과 같다고 해서 엔게쓰교(圓月橋)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유학자인 주순수(朱舜水)에 의해 설계되었다고 하며 도쿠진도와 함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귀중한 건조물입니다.

도쿠진도

미쓰쿠니가 18살 때 사기 '백이열전(伯夷列傳)' 을 읽고 감명을 받아 백이·숙제의 목상을 안치해 놓은 당입니다.



쓰텐교 다리

교토 도후쿠지의 쓰텐교 다리를 모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세이코노 쓰쓰미(둑)

중국의 항저우(현재의 저장성)에 있는 서호(西湖)의 둑을 본뜨고 만든 둑입니다. 이곳에 만들어진 이후 일본 각지의 정원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매림

미쓰쿠니는 호를 '우메사토(梅里)' 라고 칭할 정도로 매화를 좋아하였습니다. 2월 상순에는 홍매, 백매 등 약 30종류의 매화가 필니다.

스이도바시역→



논

미쓰쿠니가 그의 후사인 쓰나에다의 부인에게 농민들의 노고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논. 현재는 정원이 위치하는 분교구 내의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5월에 모내기를, 가을에 벼 베기를 하면서 전통 행사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내원

미토번 서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가라몬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다이센스이 측의 "고라쿠엔"과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노베단

크고 작은 자연석과 가공된 돌을 정교하게 조합한 중국식의 소박한 석조 바닥입니다.



가라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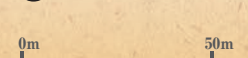
이 문은 한때 정원의 공식 입구였습니다. 전쟁으로 타버렸지만 2020년에 복원되었습니다.



다이센스이

정원의 중심을 이루는 경관입니다. 호라이지마 성과 지쿠부시마 성을 배치하여 비와코 호수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연못에서 뱃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휠체어 통행 루트



서쪽 문 이다바시역→